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

오늘은 **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는 이런 선언은 율법 준수를 제일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언약의 전부일 줄 알고 살던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혁명의 시작입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그 때에 율법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 :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3 For the promise, that he should be the heir of the world, was not to Abraham, or to his seed, through the law, bu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언약과 율법은 Link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4-6 에서도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는것을 반복합니다.**

로마서 4 :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4 Now to him that worketh is the reward not reckoned of grace, but of debt.

로마서 4 :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 But to him that worketh not, but believeth on him that justifieth the ungodly, his faith is counted for righteousness.

로마서 4 :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6 Even as David also describeth the blessedness of the man, unto whom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works,

이 구절들에서 일은 모두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5 절), 일한 것이 없이---(6 절)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모두 율법과 믿음은 link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모두 **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조 바울은 이 시작을 벌써 3:21 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 :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에서 율법 **외에** 라는 말은, χωρίς(choris) **로써**, 대표적인 뜻은 separate 인데,

요한 복음 2:7 에는 이 말이

요한복음 20 : 7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John 20:7 (KJV)
7 And the napkin, that was about his head, not lying with the linen clothes, but wrapped together in a place by itself.

이 구절에서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의 '딴' 곳이 바로 '율법 외에'의 '외'와 같은 말, χωρίς(choris) **로써**, separate 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한다는 말로, 언약과 율법은 Link 되지 않았다는 말과 exactly 똑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모든 종교와 철학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앞에서사도 바울은 새로운 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언약은 율법과 separately, χωρίς(choris) 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 :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 : 12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I.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것은 인류의 비관적 운명을 바꿀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거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거룩으로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효과적으로 절제를 할수 있어도 제거되지 않는 육성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부터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II. 갈라디아서에서의 증거

1. 두 언약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은 Link 되지 않았슴을 두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 :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서 4 : 22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갈라디아서 4 : 23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 :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자유 하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이삭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언약의 비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부터 난 자를 말하고, 사라에게서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말합니다.

시내산으로 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갈라디아서 4 :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성령으로 난 자는 이삭처럼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 :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시내산에서 태어 나고, 약속에 의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적 지위(status)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에 의해 태어 난자는 첫째는 육신에 속한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합니다. 반대로 약속에 의해 태어 난 자는 영으로 태어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언약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2. 시내산에서 율법에 의해 태어 난자

시내산에서 태어난자가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 : 23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내산에서 태어나자가 종노릇 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 :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3. 약속에 의해 태어 난 자

약속에 의해 태어 난 자는 영으로 태어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에서,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는 영으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 :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에 의해 태어 난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에서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 :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4. 시내산으로 부터 난 자 - **율법으로 태어 난 자의 Identification**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시내산으로 부터 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 온 유대적 기독교에 대한 경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부터 난 자는 우선 유대적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로 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는 믿음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되는 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 : 5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 : 6 그리스도는 그의 집 밭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집(household)에서 종, 사환(servant)으로 있게 됩니다.

III. 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의 위치는?

다음에 **의롭게 되는 믿음은 율법과** link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의 위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대 주의는 각 세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게 계시되었고 그 조건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었고,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도, 벌써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었는데, 돌아 가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었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 됩니다. 아울러 그런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기독교인은 모두 우수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율법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 : 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and not the very image of the things, can never with those sacrifices which they offered year by year continually make the comers thereunto perfect. (KJV)

모형은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원형과 비슷한 모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성전, 제물, 등은 모두 원형이신 예수님의 모형들입니다. 이런 모형들은 앞으로 올 원형을 지시해 주기 때문에 은혜 언약과 antagonistic(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 :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1 Is the law, therefore, opposed to the promises of God? Absolutely not! For if a law had been given that could impart life, then righteousness would certainly have come by the law.

이 구절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지는 않지만, 율법은 영생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형들은 은혜 언약의 원형을 미리 예시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 :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4 So the law was put in charge to lead us to Christ [h]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몽학선생은 구원의 길을 가르키지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율법의 행위로 살리라 하는 약속이있지만 (레위기 18 : 5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 : 25[1]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지키지 못할 여러가지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행하라 살리라" 하는 약속은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 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몽학 선생인 율법은 약속이 올 때까지 필요합니다. 율법은 은혜 언약은 아니고 은혜 언약을 예시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금지의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는 구원이 아닌 죄로 떨어진다는 경고의 팻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 :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나라
22 But the Scripture declares that the whole world is a prisoner of sin, so that what was promised,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

1. [25] Wherefore I gave them also statutes *that were* not good, and judgments whereby they should not live; (KJV)
[25] I also gave them over to statutes that were not good and laws they could not live by; **Ezekiel 20:25 (NIV)**

몽학선생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폐지되지않고 그대로 몽학선생을 역할을 계속합니다. 계속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서로 antagonistic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21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바울은 말하길 칭의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칭의의 필요를 깨닫게 하며,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